

제2절 순천의 재정실태*

15세기 자료인 『통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궁실조에는 “조선이 일어나자 문화가 밝고 무력이 위엄이 있어 섬 오랑캐가 공물을 바치어 화친하니, 변방 백성들이 베개를 높이 하고 생업에 만족할 수 있었다. 이에 순천부(順天府)도 충실해져서 폐허는 성과 참호가 되고 쭉대밭이 변하여 동네가 되어, 인구의 많음과 물산의 풍부함이 남쪽 고을에서 제일이었다.”는 구절이 실려 있다. 이 기사는 남수문의 객사 기문의 일부분이다. 이를 통하여 조선 초기 순천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다른 군현에 비교하여 매우 흥성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지방군현의 주요한 재정기반으로는 토지·호구·토산물 등이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전기에는 조세·공납·역, 후기에는 전정·군정·환곡이 주요 세목(稅目)이었다. 여기에서는 재정기반의 현황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순천지역의 재정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순천지역의 토지와 가호의 수는 얼마였고, 어떠한 토산물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앙정책의 변화와 함께 알아보겠다.

본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세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에 상납되는 조세(전정), 공납, 군역(군정), 환곡 그리고 순천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으로 나누어 서술하겠다. 마지막으로 18세기 말 자료를 이용하여 순천지역의 재정규모를 내역별로 정리해보겠다. 이러한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은 김덕진(金德珍) 집필임.